시사경제신문

성북구, 삼척시와 새마을지도자 화합 도모

2015 성북구 새마을가족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 성북구가 지난 24~25일 자매도시 삼척에서 '2015 성북구 새마을가족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를 열었다

성북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삼척시 성북구수련원에서 '2015년 성북구 새마을가족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를 열고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정태근 당원협의회 위원장 및 김양호 삼척시장, 삼척시의회 의장, 양 도시의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해 우호적인 시간을 가졌다.

성북구는 삼척시와 1999년 10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000년 산불, 2001년 수해피해, 2011년.2014년 폭설피해 등 삼척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총 8억 5천여만원 상당의 성금 및 생필품 등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제설피해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한 도농간 교류는 물론, 삼척시 관광지 입장요금을 삼척시민과 동등하게 할인(관광지별로 40% 전후) 받는 등 삼척시와의 상호협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아울러 성북구는 2001년 삼척수련원을 개장하고 구민이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10년간 매해 새마을 하계수련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규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장은 “금년에도 삼척의 감자와 옥수수 등을 구입하고, 삼척의 재래시장인 수산물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등 삼척시와의 우호증진은 물론 삼척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하계 수련대회는 양 지회 간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을 도모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